

98일만에...추경 처리 되나

여야 8월 1일 본회의 합의
 日경제보복 철회 결의안도
 상임위별 ‘안보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0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국회’를 열고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됐었던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과 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고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현안 질의가 시급하며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편, 여야 합의대로 내달 1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 4월25일 이후 98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이는 역대 두 번째 국회 장기 체류 기록이다. 역대 추경안 처리가 가장 지연된 해는 지난 2000년으로 당시 106일만에 추경안이 처리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경을 꼼꼼하게 따질 예정이고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평화당 당권파·비당권파 ‘DJ적통’ 경쟁

생각 방문 추모 따로 행사

제3지대 창당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정신을 누가 계승하는 것이냐를 둘러싼 ‘적통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내달 18일 DJ 10주기 추모행사를 계기로 당의 진로와 정체성을 둘러싼 세력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29일 평화당에 따르면 유성열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가 신당 창당을 위해 만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내달 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목포와 김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하의도를 찾아 김 전 대통령 추도행사를 연다. 앞서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지난 24~25일 목포·하의도를 방문해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돌아보고 ‘DJ정신’ 계승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하의도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애초 이 행사에는 당권파와 비당권파를 가리지 않고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비당권파가 단체로 이를 ‘보이콧’하고 바로 일주일 뒤에 똑같은 일정과 내용의 ‘맞불성’ 행사를 기획한 것이다.

대안정치는 이날 권노갑·정대철·이훈평·고문 등 동료동계가 주축인 당 고문단과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당의 진로와 제3지대 구축 방안 등도 논의한다. 현실정치에선 물러났지만 여전히 당내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김 전 대통령 가신그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통 경쟁에서 ‘우군’ 확보에 나선 셈이다. /연합뉴스

광주 한국노총 조합원 100여명 민주 입당

광주지역 노동조합 노조원 1000여명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광주지역 노동조합 대표 30여 명은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통한 민주진보진영의 총단결과 노동 존중사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가입한 노조원은 광주지역 16개 지회 소속으로 1000여 명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촛불항쟁

으로 들어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반노동 정책인 양대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세력과의 갈등과 촛불항쟁 이후 숨죽여 있던 기득권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노동자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고 민주당 가입 배경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9월 총선거획단 발족...내년 2월 ‘국민공천’ 첫 실험

총선 로드맵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총선거획단을 띄워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내년 2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심사단’을 발족, 첫 ‘국민공천’ 실험에 나선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선거준비 일정 로드맵을 작성, 각 시기별 선거구 운영 방안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또 11월 중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출마 희망자의 자격과 도덕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전략 선거구와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 이 공석인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 전략 공천 대상 지역이다.

이후 1월 초에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1월 중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2~3월에는 비례대표공천위와 국민공천심사단을 띄우고 ‘국민 공천심사제’에 대한 첫 실험에 돌입한다.

국민 공천심사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

집한 국민 공천심사단이 공관위에서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해 ‘추천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비례대표 순위 투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그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민심을 반영해 오긴 했지만, 당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비례대표 공천에 국민 ‘직접투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를 30일 앞둔 시점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 선거운동에 당차원의 총력을 모으는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국익 기준으로 결정할 것”

청와대는 29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익의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호르무즈에 청해부대를 파견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 구축 시급”

서삼석 의원 국회서 ‘농산물 수급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사천)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산물 수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완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농산물 계약재배 사업을 개편해 가격안정제로 전환하고 생산자 조직화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임기응변적 시장 개입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병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채소류의 소비 및 수급 환경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며 보다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강선희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조직교육위원장은 농산물 수급정책에 생산



자인 농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삼석 의원은 “수확기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매년 가격 폭락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대통령과 정부 부처, 국회의원 등 389개 기관에 양파·천일염 소비촉진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서신을 보냈으며, 지난 6월과 7월에는 양파·마늘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갖는 등 채소류 소비촉진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사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